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차이연구

이희남 · 한승희[†]

상지대학교 생활과학산업학과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Recognition of Their Traditional Costume

Hee-Nam Lee · Seung-Hee Han[†]

Dept. of Home Economics, Sangji University

(2005. 9. 2. 접수)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traditional costume of Korea and Japan and cognitive factors affecting its recognition by conducting a survey on both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so tha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bout whether to rent or own traditional costume and about whether the students surveyed have visited the other country reciprocally, can be made to set the future course of the traditional costume which have gradually been worn less frequently and favored by less people. College students of Japan and Korea were chosen for this study and asked to fill in a questionnaire. 491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SPSS10.0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s analysis and t-test.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7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student's recognition of Hanbok while 6 factors involved in Japanese student's recognition of Kimono. Korean students thought highly of the traditional costume and yet had less knowledge of it compared to the Japanese students.

Secondly, analysis of the student's recognition of their counterpart's traditional costume showed that there were equally 4 factors affecting the student's recognition. Students found the traditional costume difficult to wear and uncomfortable when worn. Japanese students regarded Hanbok as an abstract form of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while Korean students viewed Kimono as a realistic form of something concrete.

Thirdly,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bout the recognition based on the student's owning or renting the traditional costume or visiting the counterpart's country, showed that students owning the traditional costume were more positive about the traditional costume and well versed in it. And students having visited their counterpart's country thought more favorably of the traditional costume of their counterpart.

Key words: Traditional costume, Hanbok, Kimono, Recognition; 전통복식, 한복, 기모노, 인식

I. 서 론

인류가 착용하는 의복은 착용범위에 따라 크게 세

계적으로 널리 착용되는 복식과 특정민족이나 국가에서 착용되는 전통복식으로 나뉜다. 전통복식이란 특정지역이나 국가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그들 고유의 복식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복식은 특정문화 속에서 시대적인 사회변천에 의해 전승·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과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오늘

[†]Corresponding author

E-mail: woohee92@hanmail.net

이 논문은 2004년도 상지대학교 연구비지원(연구년제)에 의한것임.

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세계적인 의복과 달리 그 자체에 외형적인 특색뿐만 아니라 그 문화만이 가지는 사회적 관습과 관행은 물론 정신세계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전통복식은 한복이라 할 수 있고, 한복은 우리문화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얼이 담겨있어 민족문화의 일면을 상징한다. 민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의복문화의 기능은 매우 지대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근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패션계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민족의 고유성이나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계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일상복으로 착용되던 전통복식은 관혼상제와 같은 특정한 날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 물론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도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착용되지 않고 있다(城眞理子, 杉本弘子, 1992).

따라서 우리의 전통복식이 가지는 특수성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미로서 인정받으려면 우선 한복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인들의 생활감각에 맞도록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김순심, 2002). 세계 무대에서 이와 같이 우리 전통복식문화의 고유성이 이미지화 되었을 때야말로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류지호 외, 2001).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한복에 대한 태도, 한복착용에 있어서의 만족·불만족, 구매실태, 한복의 디자인을 응용한 의복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최근에는 주로 전통복식의 구성적 측면이나 전통복식의 요소를 응용한 생활한복의 착용 및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복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전통복식과 상대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이 나아갈 길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전통복식을 정의함에 있어 한국의 전통복식은 조선시대(A.D. 1392~1910) 말기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착용되고 있는 한복(韓服)으로, 일본의 전통복식은 江戸시대(A.D. 1603~1868) 초기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착용되고 있는 和服(着物)로 정의한다(金由美, 中川早苗, 1998).

II. 선행연구 고찰

정인희 외(1997)는 한복에 대한 태도를 ‘한복에 대한 자부심’요인과 ‘한복착용의사’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나는 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복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복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복에 대한 자부심’ 요인에는 태도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어있고, ‘보다 손질이 편한 옷감으로 한복이 만들어진다면 한복을 더 자주 입을 것이다’, ‘적당한 가격과 품질의 기성한복이 시판된다면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복착용의사’ 요인에는 태도의 의도적 요소가 포함되어있다. 이 두 요인을 쌍체비교한 결과 한복에 대한 자부심 요인이 한복착용의사 요인보다 높은 값을 보여 비록 한복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복착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이것은 대학생의 경우 한복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한복의 구매의도는 낮게 나타난 꽉태기, 남미우(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권수애 외(1998)는 한복에 대한 의식의 하위요인을 전통적인 면, 실용적인 면, 심미적인 면, 착용태도면의 네 요인으로 나누었다. 조사대상 모두 한복의 전통적인 면에 대한 의식이 높고 실용적인 면에 대한 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복이 한국인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지만 실제 착용이나 구매여부는 고려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일본의 대학생은 전통복식인 기모노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조사대상의 11.5%만이 기모노를 혼자 입을 수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착용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가격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金由美, 中川早苗, 1998).

최선형 외(1998)는 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착용, 구매, 디자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복은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손질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착용에 대한 불만족 요인, 양복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맞춰입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한 불만족 요인, 옷감과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세 요인 중 착용과 구매에 관한 불만족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한복은 착용 시 활동에 불편하고 압박감을 느끼며, 손질과 구입이 번거롭다고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城眞理子, 杉本弘子(1992)와 곽태기, 남미우(2002)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城眞理子, 杉本弘子(1992)은 조사대상의 60%가 기모노는 활동의 어려움, 오염 시 세탁의 불편함, 입는 방법의 어려움, 가격의 비쌈으로 인해 평상시 입기 어렵다는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곽태기, 남미우(2002)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복식에 대한 평가기준을 살펴본 결과 제1요인이 '관리 및 활동성'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의 의식은 대체적으로 자국의 전통복은 아름답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상품이나 착용 및 구매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자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요인을 알아본다.

- 1-1. 한국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요인을 알아본다.
- 1-2.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요인을 알아본다.

연구문제2. 상대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요인을 알아본다.

- 2-1.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요인을 알아본다.
- 2-2. 일본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요인을 알아본다.

연구문제3. 자국의 전통복식의 대여여부, 보유여부, 상호국가 방문여부에 따라 전통복식의 인식차이를 알아본다.

3-1. 한국 대학생의 한복의 대여여부, 보유여부, 상호국가 방문여부에 따라 한복과 기모노의 인식차이를 알아본다.

3-2.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의 대여여부, 보유여부, 상호국가 방문여부에 따라 한복과 기모노의 인식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위치한 대학의 대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004년 10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국과 일본에 각각 300부씩을 배부하였다. 수거한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한국 245부, 일본 236부 등 총 481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한국은 남학생이 20.2%, 여학생이 79.8%, 일본은 남학생이 24.3%, 여학생이 75.7%를 차지하여, 양국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학년의 경우 한국은 1학년이 53.5%로 가장 많고, 일본은 1~4학년이 20.9%~28.5%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전통복식의 소유여부는 한국의 경우 남학생 3.7%, 여학생 37.9%가, 일본의 경우 남학생 1.7%, 여학생 33.9%가 전통복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통복식의 소유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대학생(14.8%)보다 일본 대학생(45.2%)의 전통복식 대여경험이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오래전부터 전통복식대여점이 있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금융한파로 고가의 예복시장이던 맞춤한복시장이 정체된 틈새를 비집고 한복대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지 채 10여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일본의 여대생은 성인식이나 졸업식, 친구의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 기모노를 입음으로써 기모노 패션을 즐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도 사료된다(金由美, 中川早苗, 1998).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한복 대여점 시장규모가 1998년도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멋진 한복", 2002) 앞으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전통복식을 대여해보는 기회가 많아지리라 예상된다.

상대 국가를 방문해 본 경험의 경우 양국의 대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여, 한국 대학생의 18.6%, 일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단위:N(%))

		국가	
		한국	일본
성	남	49 (20.2)	58 (24.3)
	여	194 (79.8)	181 (75.7)
	합계	243 (100)	239 (100)
학년	1학년	130 (53.5)	68 (28.5)
	2학년	73 (30.0)	62 (25.9)
	3학년	27 (11.1)	50 (20.9)
	4학년	13 (5.3)	59 (24.7)
	합계	243 (100)	239 (100)
전통복 소유여부	남 유	9 (3.7)	4 (1.7)
	남 무	40 (16.5)	54 (22.6)
	여 유	92 (37.9)	81 (33.9)
	여 무	102 (42.0)	100 (41.8)
	합계	243 (100)	239 (100)
전통복 대여 여부	남 유	8 (3.3)	17 (7.1)
	남 무	41 (16.9)	41 (17.2)
	여 유	28 (11.5)	91 (38.1)
	여 무	166 (68.3)	90 (37.7)
	합계	243 (100)	239 (100)
상대국 방문 여부	남 유	13 (5.4)	7 (2.9)
	남 무	36 (14.8)	51 (21.3)
	여 유	32 (13.2)	35 (14.6)
	여 무	162 (66.7)	146 (61.1)
	합계	243 (100)	239 (100)

본 대학생의 17.5%로가 상대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에 있어서 상대국의 방문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리라 예상된다.

3.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권수애 외, 1998; 정인희 외, 1997; 최선형 외, 1998)를 토대로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자국의 전통복식의 인식에 관한 27문항, 상호 전통복식의 인식에 관한 12문항,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에 전통복식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한복, 일본에서는 기모노라는 단어로 사용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등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공통인자분석 중 반복추축요인 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공통인자분산(communality), Scree-test, 고유치, 측정문항, reproduced correlation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측정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 분석

I) 한국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

한국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표 2>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2078.678(p값=.000)$ 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를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KMO값이 .775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는 공통인자분산, Scree-test, 고유치, 측정문항, reproduced correlation(7.0%) 등을 살펴보았을 때 요인 부하량이 낮은 3개의 문항을 제거한 요인수 7개가 적절하였으므로 한국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은 7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총 설명력은 51.940%이다. 요인 1은 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수하고 세련되었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자부심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앞으로 한복착용 및 착용상황, 착용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발전가능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한복을 입으면 특별한 일이 있을것이라고 여기며 한복은 구입해야하며 한 벌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관습지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한복은 웃감 및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며 압박감 및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외적불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한복을 응용한 상품 및 옷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구매의사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한복은 활동이 불편하다와 입는 방법이 어렵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착용불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한복은 나의 외모 및 체형에 잘 어울

<표 2> 한국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한복에 대한 인식 요인 및 세부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	누적분산 (%)	Cronbach's α
요인 1: 자부심					
한복은 디자인이 아름답다.	.777				
다른 나라의 전통복식보다 한복이 우수하다.	.669				
한복의 색상은 세련되었다.	.625	2.473	10.305	10.305	
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22				
한복의 색상배합은 세련되었다.	.468				
요인 2: 발전가능성					
앞으로 한복을 입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861				
앞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722				
한복은 앞으로도 계속 착용 될 것이다.	.529				
앞으로 한복을 입어야 할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다.	.489				
요인 3: 관습지향					
외국에서 한복을 보면 자랑스럽다.	.626				
다른 사람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 무슨 특별한 일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491				
한국 사람이라면 한복을 한 벌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479	1.690	7.041	26.638	
다른 사람이 한복을 입은 모습은 보기 좋다.	.471				
나는 앞으로 한복을 구입해야 한다(결혼, 명절).	.445				
요인 4: 외적불만					
한복은 옷감이 다양하지 못하다.	.670				
한복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	.663				
한복을 입으면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493	1.625	6.771	33.409	
요인 5: 구매의사					
한복을 응용한 옷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	.845				
한복을 응용한 상품을 갖고 싶다.	.771	1.532	6.382	39.791	
요인 6: 착용불만					
한복을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다.	.882				
한복은 입는 방법이 어렵다.	.680				
한복을 입으면 압박감을 느낀다.	.477	1.469	6.122	45.914	
요인 7: 외모적합성					
한복은 나의 외모와 잘 어울린다.	.794				
한복은 나의 체형에 잘 어울린다.	.747	1.446	6.026	51.940	
					0.776

린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외모적합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1요인인 자부심요인이 10.305%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선행연구 황춘섭(1977)의 연구 결과에서 10-19세의 남자 51.7% 여자 60.0%, 장석향(1978)의 연구결과에서 남녀 378명중 78%의 높은 수치가 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인희 외(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제1요인으로 한복에 대한 자부심을 들고 있어 과거 한복에 대한 인식의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한국인은 한복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 요인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 측정문항이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본 결과 $\chi^2=1239.491$ ($p값=.000$), KMO값이 .706로 요인분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수는 6개가 적절하였다(표 3).

요인 1은 앞으로 기모노에 대한 관심 및 착용상황, 착용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발전가능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기모노를 응용한 옷 및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구매의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기모노가 우수하며 세련, 아름답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자

부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명절에는 기모노를 입고 싶으며 입은 모습은 보기 좋고 디자인이 다양하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심미성·관습지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기모노의 종류나 명칭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유명한 기모노디자이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인지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기모노는 입는 방법이 어렵고 입으면 압박감, 남의 시선을 느낀다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착용불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한국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요인과 비교를 해보면, 요인 중 자부심요인의 경우, 한국 대학생은 제1 요인으로 일본 대학생은 제3요인으로 나타났고, 요인의 설명률 또한 한국 대학생 쪽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족을 상징하며, 민족의 주체성으로 써 전통복식을 느끼고 있고, 전통문화로써 강한 애착심과 궁지를 갖고 있는 항목 모두에서 일본 여자대학생보다 한국 여자대학생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金由美, 中川早苗(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기모노의

종류나 명칭, 디자이너를 알고 있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진 인지성 요인이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에서만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보다 일본 대학생이 전통복식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한국 대학생은 전통복식에 대하여 자부심은 높으나 세부지식은 그만큼 낮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김순심(2002)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과(전공계)와 낮다고 생각되는 과(비전공계) 학생들을 비교하였는데 전공계 학생들이 비전공계 학생들보다 한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고, 반대로 거추장스럽고 촌스럽게 여기는 부정적 이미지는 비전공계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나 교육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에게 전통복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복식에 관한 일반지식을 함량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3>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기모노에 대한 인식 요인 및 세부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	누적분산 (%)	Cronbach's α
요인 1: 발전 가능성					
앞으로 기모노를 입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874				
앞으로 기모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725				
기모노는 앞으로도 계속 착용될 것이다.	.476	1.892	9.956	9.956	.737
앞으로 기모노를 입어야 할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다.	.450				
요인 2: 구매의사					
기모노를 응용한 옷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	.914				
기모노를 응용한 상품을 갖고 싶다.	.791	1.617	8.494	18.451	.900
요인 3: 자부심					
기모노의 색상은 세련되었다.	.775				
기모노는 디자인이 아름답다.	.731				
다른 나라의 전통복식보다 기모노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467	1.598	8.412	26.863	.685
요인 4: 심미성·관습지향					
명절에는 기모노를 입고 싶다.	.543				
기모노는 나의 체형에 잘 어울린다.	.503				
기모노는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R).	.486	1.445	7.607	34.470	.501
기모노는 개성이 없다(R).	.475				
다른 사람이 기모노를 입은 모습은 보기 좋다.	.441				
요인 5: 인지성					
기모노의 종류나 명칭 등을 잘 알고 있다.	.674				
유명한 기모노 디자이너의 이름을 안다.	.612	1.403	7.386	41.857	.616
요인 6: 착용불만					
기모노는 입는 방법이 어렵다.	.658				
기모노를 입으면 압박감을 느낀다.	.462	1.089	5.730	47.586	.530
기모노를 입으면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444				

2. 상호간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I)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들 문항이 요인분석의 가능성은 만족시키는지 알아 본 결과 $\chi^2=1183.458(p값=.000)$, KMO값이 .779로 요인분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요인 1은 기모노를 활용한 상품 및 의상이 많으며 기모노가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졌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디자인활용성·유명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기모노는 입는 방법이 어렵고 입으면 활동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착용불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기모노는 아름답고, 일본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우호적관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일본인은 기모노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모노가 앞으로도 계속 착용될것이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발전가능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4>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기모노에 대한 인식 요인 및 세부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	누적분산 (%)	Cronbach's α
요인 1: 디자인 활용성유명도					
기모노의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많다.	.726				
기모노는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다.	.693				
기모노의 디자인을 활용한 의상을 자주 보았다.	.689	2.296	19.134	19.134	.824
한복보다 기모노가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알려졌다.	.638				
요인 2: 착용불만					
기모노는 입는 방법이 어렵다.	.921				
기모노를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다.	.873	1.668	13.897	33.031	.903
요인 3: 우호적 관심					
기모노는 색상이 세련되었다.	.780				
기모노는 아름답다.	.640				
일본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다.	.414	1.523	12.693	45.724	.679
요인 4: 발전 가능성					
일본인은 기모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724				
일본인은 기모노를 자주 입는다.	.713				
기모노는 앞으로도 계속 착용 될 것이다.	.515	1.491	12.424	58.148	0.747

<표 5> 일본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한복에 대한 인식 요인 및 세부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	누적분산 (%)	Cronbach's α
요인 1: 우호적 관심					
한복은 아름답다.	.864				
한복은 색상이 세련되었다.	.769				
한국인은 한복을 자주 입는다.	.613	2.316	19.301	19.301	.770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다	.467				
한국인은 한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461				
요인 2: 착용불만					
한복은 입는 방법이 어렵다.	.912				
한복을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다.	.778	1.502	12.519	31.820	.822
요인 3: 발전가능성유명도					
한복은 앞으로도 계속 착용될 것이다.	.592				
한복은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다.	.569				
기모노보다 한복이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알려졌다.	.500	1.207	10.059	41.879	.617
요인 4: 디자인 활용성					
한복의 디자인을 활용한 의상을 자주 보았다.	.835				
한복의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많다.	.619	1.206	10.048	51.927	.691

2) 일본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들 문항이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 본 결과 $\chi^2=840.601(p\text{값}=.000)$, KMO값이 .697로 요인분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요인 1은 한복은 아름다우며 세련되었고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우호적 관심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입는 방법 및 활동의 불편성문항으로 이루어져 착용불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기모노보다 한복이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알려졌다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발전가능성·유명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한복의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 및 의상이 많다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디자인활용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앞의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요인분석과 비교해 보면 둘 다 착용불만요인이 2요인으로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모두 각각 자국 및 상호국의 전통복식은 입는 방법이 어려우며, 활동이 불편한 옷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 관심이 1요인으로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은 디자인 활용성 및 유명도가 제1요인으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기모노를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 대학생은 단지 한복을 한국의 전통문화의 하나로써,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한복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응용한 상품개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3. 전통복식의 대여여부, 소유여부, 상호국 방문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I) 한국 대학생의 전통복식 대여여부, 소유여부, 상호국 방문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복대여여부와 소유여부 및 상대국 방문여부에 따라 한복 및 기모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여여부에서는 구매의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유여부에는 발전가능성, 관습지향, 구매의사, 외모적합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여를 해본 적이 있는 집단과 해본 적이 없는 집단 사이에 구매의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여를 해본 적이 있는 집단은 대여에 있어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소유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의 대여를 선호하는 것이고, 대여를 해보지 않은 집단은 한복을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한복대여업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한복을 대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그 사용횟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복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발전가능성, 관습지향, 구매의사, 외모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한복을 소유한 집단이 한복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한국 대학생의 한복 대여여부, 소유여부, 상대국 방문여부에 따른 한복과 기모노에 대한 인식차이

요인명	대여여부			소유여부			방문여부			
	유(n=36) M(S.D)	무(n=207) M(S.D)	t	유(n=44) M(S.D)	무(n=199) M(S.D)	t	유(n=45) M(S.D)	무(n=198) M(S.D)	t	
한복	자부심	-0.04(0.96)	0.01(0.88)	0.257	0.12(0.70)	-0.03(0.92)	0.962	0.14(0.69)	-0.03(0.92)	-1.185
	발전가능성	-0.09(0.93)	0.02(0.91)	0.617	0.28(0.82)	-0.06(0.92)	2.439*	0.12(0.96)	-0.03(0.90)	-0.929
	관습지향	-0.17(0.97)	0.03(0.78)	1.206	0.33(0.68)	-0.07(0.82)	3.444**	-0.04(0.89)	0.01(0.80)	0.358
	외적불만	-0.15(0.65)	0.03(0.87)	1.180	0.02(0.83)	-0.01(0.85)	0.204	0.03(0.97)	-0.01(0.82)	-0.230
	구매의사	-0.35(0.93)	0.06(0.90)	2.450*	0.41(0.75)	-0.09(0.93)	3.369**	-0.08(0.93)	0.02(0.91)	0.637
	착용불만	0.03(1.03)	-0.01(0.90)	-0.222	0.14(0.87)	-0.03(0.92)	1.166	-0.09(1.00)	0.02(0.90)	0.667
	외모적합성	0.29(0.91)	-0.05(0.87)	-2.099*	0.26(0.86)	-0.06(0.87)	2.235*	0.06(0.80)	-0.01(0.90)	-0.502
기모노	디자인활용성·유명도	-0.11(0.86)	0.02(0.89)	0.789	0.19(1.00)	-0.04(0.85)	1.437	0.23(0.91)	-0.05(0.87)	-1.876
	착용불만	-0.05(0.96)	0.01(0.95)	0.327	-0.04(0.93)	0.01(0.95)	-0.318	0.03(0.89)	-0.01(0.96)	-0.272
	우호적 관심	-0.22(0.80)	0.04(0.85)	1.755	0.10(0.80)	-0.02(0.86)	0.945	0.37(0.76)	-0.08(0.84)	-3.569**
	발전가능성	-0.19(0.94)	0.03(0.80)	1.356	0.29(0.83)	-0.06(0.81)	2.593*	0.01(0.98)	-0.00(0.79)	-0.066

<표 7>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 대여여부, 소유여부, 상대국 방문여부에 따른 기모노와 한복의 인식차이

요인명	대여여부			소유여부			방문여부			
	유(n=108) M(S.D)	무(n=131) M(S.D)	t	유(n=37) M(S.D)	무(n=202) M(S.D)	t	유(n=42) M(S.D)	무(n=197) M(S.D)	t	
기 모 노	발전가능성	-0.08(0.84)	0.06(0.97)	1.217	0.22(0.94)	-0.04(0.91)	1.511	0.03(0.87)	-0.01(0.92)	-0.215
	구매의사	-0.03(1.00)	0.03(0.93)	0.489	-0.26(0.96)	0.05(0.96)	-1.742	-0.08(0.98)	0.02(0.96)	0.605
	자부심	0.02(0.85)	-0.01(0.90)	-0.256	0.10(0.73)	0.02(0.90)	0.867	-0.07(0.76)	0.02(0.90)	0.652
	심미성·관습지향	0.06(0.70)	-0.05(0.88)	-1.117	0.25(0.72)	-0.05(0.81)	2.218*	-0.30(0.80)	0.07(0.79)	2.673*
	인지성	-0.01(0.74)	0.01(0.90)	0.220	0.41(0.97)	-0.08(0.78)	3.336**	0.09(0.82)	-0.02(0.83)	-0.785
	착용불만	0.00(0.79)	-0.00(0.80)	-0.054	-0.21(1.01)	0.04(0.74)	-1.714	0.09(0.88)	-0.02(0.77)	-0.776
한 복	우호적 관심	0.11(0.83)	-0.09(0.98)	-1.682	0.41(0.76)	-0.07(0.93)	3.339**	0.33(0.91)	-0.07(0.91)	-2.521*
	착용불만	-0.03(0.94)	0.02(0.94)	0.359	-0.08(0.88)	0.01(0.95)	-0.588	0.25(0.91)	0.05(0.94)	1.840
	발전가능성·유명도	-0.01(0.76)	0.00(0.79)	0.099	0.11(0.61)	-0.02(0.80)	1.117	0.01(0.72)	-0.00(0.79)	-0.057
	디자인활용성	0.05(0.83)	0.04(0.90)	0.796	0.43(1.17)	-0.08(0.78)	3.230**	0.54(1.08)	-0.11(0.78)	-4.404***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요인과 한복의 대여, 소유, 방문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유여부의 발전가능성, 방문여부의 우호적 관심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번이라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 대학생은 기모노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본 대학생의 전통복식 대여여부, 소유여부, 상호국 방문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모노 대여여부, 소유여부 및 상대국 방문여부에 따라 기모노 및 한복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소유여부에서는 심미성·관습지향과 인지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소유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기모노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세부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여부에서는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본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요인과 기모노의 대여, 소유, 방문여부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소유여부, 방문여부에서 우호적 관심, 디자인 활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한복과 한국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며 한복의 디자인을 활용한 의상과 상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자국의 전통복식 및 상호간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요인을 알아보고, 그 요인과 전통복식의 대여여부, 소유여부, 상호국가 방문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점점 그 착용빈도 및 선호도가 낮아져 가고 있는 전통복식에 대하여 새로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 요인은 자부심, 발전가능성, 관습지향, 외적불만, 구매의사, 착용불만, 외모적합성의 7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 요인은 발전가능성, 구매의사, 자부심, 심미성·관습지향, 인지성, 착용불만의 6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은 일본 대학생보다 자부심 요인에 대한 설명률이 높으나 전통복식의 지식으로 묶여진 인지성요인은 나타나지 않아 전통복식에 대한 세부지식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호간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요인은 디자인활용성·유명도, 착용불만, 우호적 관심, 발전가능성의 4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요인은 우호적 관심, 착용불만, 발전가능성·유명도, 디자인활용성의 4요인으로 나타났다. 한일 대학생 모두 자국 및 상호국의 전통복식은 입는 방법이 어려우며, 활동이 불편한 옷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 대학생은 한복을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추상적인 형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생은 디자인활용성·유명도요인 즉,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기모노를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전통복식의 대여여부, 소유여부, 상호국 방문여부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우선 한국 대학생은 한복대여여부에서는 구매의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유여부에는 발전가능성, 관습지향, 구매의사, 외모적합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대학생의 기모노에 대한 인식요인과의 차이는 소유여부의 발전가능성, 방문여부의 우호적 관심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 대학생의 기모노 소유여부에서는 심미성·관습지향, 인지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한복에 대한 인식요인과의 차이는 소유여부, 방문여부에서 우호적 관심, 디자인활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통복식은 첫째, 대학생들에게 전통복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 관심도를 높이고 구매 및 착용에 따른 불만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은 기모노의 대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연령 평균 60% 이상이며, 특히 10, 20대에는 70% 이상으로 나타난(城眞理子, 杉本弘子, 1992) 점을 고려할 때, 한복대여업체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한복을 대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손쉽게 경험함과 동시에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통복식의 긍정적인 면을 고취시킴으로써 한국 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권수애, 최종명, 이은경. (1998). 한복의 착용실태와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7(1), 129-138.
- 김순심. (2002). 청주지역 남·여대학생의 전통한복에 대한 이미지 연구. *호서문화논집*, 제16집, 113-134.
- 곽태기, 남미우. (2002). 남녀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한복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복식*, 52(4), 25-38.
- 류지효, 김용서, 배수정. (2001). 한국 전통복식이미지 제고에 관한 연구—이영희의 세계무대 진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4(1), 121-133.
- ‘멋진 한복’ 값싸게 입는다. (2002, 9. 17). *문화일보*. 자료검색일 2005. 3. 8. 자료출처 <http://www.munhwa.com>
- 장석향. (1978). 한복착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복식*, 2, 67-71.
- 정인희, 최선흥, 강순제. (1997).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서울·대전·부산을 중심으로—. *복식*, 35, 253-264.
- 최선흥, 정인희, 강순제. (1998).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착용 및 구매실태. *복식*, 37, 33-46.
- 황춘섭. (1977).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1, 119-129.
- 金由美, 中川早苗. (1998). 民族服に對する意識の比較研究—韓·日女子學生の民族服に對する意識の差異—. *日本家政學誌*, 49(4), 87-96.
- 城眞理子, 杉本弘子. (1992). 和服の着用経験と意識について. *日本衣服學誌*, 36(1), 7-18.